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제4주 】

인도 : 이범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경배의 찬송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파사로운 빛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고갯마루 밑에서 허덕일 때마다,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듯 우리의 이웃들도 누군가에게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수줍어서 망설일 때도 많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추위 앞에서 벌벌 떨었고, 욕망을 희망으로 포장했으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시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무력하고 교활하며 무관심했던 우리를 다시 깨워 주십시오. 내면 깊이 감춰진 진리의 열망을 서로의 눈에서 발견해 내고,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 함께 발걸음을 옮기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위로의 말씀 엡 2:4~5	인도자
교 독 문 39. 시 95편	다 함께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찬 양 510. 하나님의 진리 등대	다 함께
성경봉독 엡 6:5-9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함 께

특 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참빛 찬양대
말 씀	그리스도께 하듯이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 함께
찬 양	220.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함께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다 함께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군림하려 들거나 풍조를 좇아 헛된 것에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정성껏 섬기며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기쁨의 열매를 누리십시오. 진정 어린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우리는 한배에 타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반자로서 책임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축 복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